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행태 분석

이아름 연구원

## 요약

- 최근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성별, 연령, 질병의 3가지 요인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보험회사는 이러한 3가지 요인들을 장기요양보험의 가격 산출, 준비금 마련, 언더라이팅 등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바, 최근 Gen Re는 장기요양(LTC: Long-Term Care)보험 가입자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표함.<sup>1)</sup>
  - 동 보고서는 17년 동안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유럽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됨.
  - 장기요양보험은 노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인지 및 신체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여 독자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비롯하여 영구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를 온전히 또는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임.
  
- 실증적 분석 결과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들의 1) 성별, 2) 연령, 3) 질병의 3가지 요인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성별과 연령 요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간병 첫해부터 사망 시까지 여성 가입자가 남성 가입자보다 생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여성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간병 첫해에는 76%의 여성 가입자가 생존하였으나, 남성 가입자는 59%가 생존함.
    - 간병 5년째에는 41%의 여성 가입자가 생존하였으나, 남성 가입자는 22%만이 생존함.
  - 장기요양보험은 신체활동 장애를 보조하는 서비스로 나이와 건강상태가 양의 상관관계에 있어 연령이 많아질수록 LTC 수요가 증가함.

1) Gen Re(2016), “Long Term Care – How Does the Survival Behaviour of Claimants Differ?”.

■ 장기요양보험 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건강상태로, 질병 종류에 따라 다른 생존율을 보여줌.

- 장기요양보험은 만성질환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생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요인이 증가함.
- 장기요양보험은 장애 외에 암, 치매, 신경질환, 뇌혈관 질환 등과 같은 질병 종류에 따라 가입자들의 생존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 모형을 활용하여 5개의 질병으로 세분화한 집단의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암 환자의 생존율이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질병 집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질병 집단을 1) 암, 2) 신경질환 및 치매, 3) 뇌혈관 질환, 4) 복합 질환<sup>2)</sup>, 5) 그 외 질환<sup>3)</sup>의 5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함.
- 보험금 청구 시점 당시 남녀 모두 신경질환 및 치매 환자가 가장 큰 비중(46%)을 차지한 반면, 남녀 암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였음.
- 암 환자의 생존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속히 줄어들었으며, 특히 남성 암 환자가 남성 일반인보다 사망률이 7배나 높았음.
- 신경질환 및 치매 환자는 장기요양보험 이용 초반에는 생존율이 높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암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자보다 생존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신경질환 및 치매 환자와 나머지 질환자의 생존율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남성의 경우는 컸음.

■ 이러한 통계분석 결과는 성별, 연령 및 질병의 3가지 요인을 장기요양보험의 가격 산출, 준비금 마련, 언더라이팅 등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kiri](#)

2) 하나의 요인이 아닌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3) 극히 드문 질병으로 다른 네 가지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